

아테시아, 주정부와 주택정책 합의 내년 2월까지 1,069 가구 건설 포함한 계획 제출

캘리포니아 정부와 아테시아가 주택정책 법규 위반 문제를 두고 합의에 도달했다. 아테시아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주택 요소(Housing Element)'를 제출·채택하지 못해 소송 대상이 됐다. 합의안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승인되면, 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총 1,069가구의 주택 건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 가운데 약 57%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를 위한 '적정 주택(affordable housing)'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택 요소법은 모든 지방정부가 8년 단위로 주택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에는 목표와 정책, 정량적 목표, 재정 자원, 주택 보존·개선·개발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아테시아시를 직접 언급하며 "의무 이행을 미루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튜본타 거주 법무장관도 "주택 계획은 추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지방정부가 법을 지키고 주택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테시아시는 성명을 내고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1.62제곱마일 규모의 소도시로서 제한

된 자원 속에서 계속 바뀌는 주택법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테시아시는 최근 주택 관련 주요 성과도 제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합용도 개발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택 밀도와 적정주택 공급 가능성을 높였고, 8월에는 '아테시아 다운타운 특정 계획'을 채택해 신규 교통 노선인 사우스게이트웨이 라인 주변 주택 개발을 촉진했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179가구의 신축 주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2021~2029년 주택 요소 계획 자체는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크게 지연된 상태다. 합의안에 따르면, 아테시아가 내년 2월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달 최소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리 사자드 타지 아테시아 시장은 "주택 요소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승인한 179가구를 포함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주택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테시아의 2023년 기준 중위 가구소득은 9만7,712달러로 카운티 전체(8만7,760달러)보다 높고, 주택 소유율은 53.6%로 카운티 평균(45%)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도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지방정부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50세 연봉 14만5,000불 이상 추가 불입 로스로 '시큐어 2.0 법' 규정 확정 2027년부터 퇴직연금 방식 변화



국세청(IRS)과 재무부가 지난 주 '시큐어 2.0 법'의 일부 규정을 확정하면서 50세 이상 근로자의 401(k) 등 퇴직연금 추가 불입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전년도 현 고용주로부터 14만5,000달러 이상을 받은 근로자가 추가 불입을 할 경우, 세전이 아닌 세후 불입(로스)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일부 플랜은 "법 조항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해석"한다는 조건 하에 2026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고 IRS는 밝혔다.

그때까지는 근로자들이 세전과 세후 불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직장 플랜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본인 자금 여력이 있다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 Roth 전환 배경과 의미
시큐어 2.0 법안에 포함된 로스 추가 불입 조항은 입법 자금 마련을 위한 일종의 '재원 충당' 성격을 띠고 있다. 로스 불입은 세후 자금을 넣지만 운용 수익은 비과세다. 반면 세전 불입은 당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인출 시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로스 불입 시 조정총소득(AGI)이 높아져 다른 공제 자격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다년간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때"라며 "2026년까지 세전 불입을 최대한 활용할지, 아니면 미리 로스 전환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불입 한도와 참여율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는 401(k)에 최대 2만3,500달러를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7,500달러를 넣을 수 있다. 또한 60~63세 근로자는 '슈퍼 캐치업'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1만1,25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다. 벵가드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00여 개 플랜과 약 500만 명의 가입자 중 거의 모든 플랜이 추가 불입을 제공했지만, 이를 활용한 근로자는 전체 자격자의 16%에 불과했다. 참여자의 상당수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였다. 전문가들은 방관자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전과 로스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현재와 미래의 세율 전망,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희대연합동문회 골프대회



경희대학교 북미주 연합동문회가 주최한 제22차 골프대회 및 총회가 지난 13일 어바인 스트로베리힐 골프클럽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에는 김종복 경희대 대외협력 부총장, 미원 평화상 후원재단 노상석 이사장, 총동

문회 전영덕 회장, 연합 동문회 안병돈 대회장 등 동문 등 140명이 참석했다. 우승은 남가주 동문팀이 차지했으며 차기 회장으로 남가주 김기형 회장이 선출됐다. 골프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희대 동문회

8주 코스
Sunny Side Up
"부모교육"
의식적인 부모가 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100 OFF
9월 30일까지 등록시

Sunny Side Up Project T.(714)249-3356
E.sunnysideupproject25@gmail.com
카카오톡(1:1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q3bilQh

교육 대상 신생아부터 10대 자녀를 둔 부모, 예비 부모, 조부모

자녀를 키우는 일이 힘들고 지치시나요?
• 아침마다 아이 깨우기, 숙제 챙기기, 등하교 라이드
• 화내고, 싸우고, 문 닫는 침묵이 반복되는 갈등
• 대학, 취업, 결혼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걱정들

이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 아이가 독립적, 책임감 있게 성장하길 바란다.
• 존중, 소통, 공감, 협력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다.
• 감정 조절과 경청을 통해 아이와 소통하고 싶다.
•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8주간의 부모 여정에 초대합니다! (대면/서면 강의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 목적
아이의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고, 갈등은 줄이고 소통은 늘리는 의식적인 부모,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성장해 보세요.
훈육의 원칙과 방법을 알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됩니다.

교육 내용
■ 효과적인 대화법 & 문제 해결 기술
■ 자율성과 협력성 키우는 방법
■ 감정 조절과 소통을 돕는 훈련
■ 자녀 갈등 다루기
■ 연령별 발달 단계 & 뇌 발달 기반의 관계 중심 훈육
■ 이론과 실습 중심 수업(Role Play, Practice, Q&A, 과제 포함)
■ 의식적인 말하기와 듣기 연습
■ 심리학 기반의 의식적인 훈육 전략
■ '양육 20계명'으로 실천력 UP!

강사 Dr. Sun Yi, Ph.D. in Educational Psychology
Lead Parenting Coach

1:1 자녀 상담 및 신청 환영 *무료 특강 문의 환영*